



# 상생과 공존을 위한 안전보건문화 마중물

## OCI 주식회사 군산공장 |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컨설팅

글 정수희 사진 김지원

작은 펜에서 첨단 전자기기에 이르기까지,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의 원재료는 우리 삶 곳곳을 이루고 있다. 1959년 동양화학공업(株)으로 출범한 OCI는 세상의 기초가 되는 핵심 소재를 바탕으로 화학 기술을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해 오늘도 도약하는 OCI 군산공장을 찾았다.

### 매일매일 유기적인 크로스체크는 필수

OCI는 반도체용 웨이퍼의 핵심 소재가 되는 폴리실리콘 제조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 국내 유일의 생산업체로 포항을 시작해 익산, 광양, 군산 등 4곳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OCI 군산공장은 전북 최대의 화학공장으로 노동자 수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약 800명에 달한다. 반도체용·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여러 기초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화학공장인 만큼 여러 유해·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제품군별 다양한 작업의 유형을 파악하고 유해·위험 요소에 대응하는 SH&E(안전보건·환경)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SH&E팀은 안전과 환경과로 나뉘어 있으며 그중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안전과는 안전사무기술직 3명, 보건관리자 2명, 기능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전과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크로스체크의 습관화’로 꼽았다. 기본을 중시한다고 말한 담당자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의 안전을 순찰하며 대조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OCI 군산공장은 인원 대비 공장 규모가 크고 넓은 편이라 고위험 작업에 대비해 팀원 간 크로스체크는 필수입니다. 보통 하루에 20건 내외의 고위험작업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며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안전문화 브랜드’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OCI 군산공장은 올해 안전문화 정착을 가장 큰 화두로 삼았다.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인지돼야, 보다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마인드를 새롭게 정비한다는 마음으로 ‘안전브랜드’도 선포했다. 바로 ‘안전에서 안전으로’로 안전은 반복해서 돌고, 또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전 직원이 참여해 직접 방향성을 제시한 결과이자 노동자가 직접 안전문화를 만들어 정착한다는 증명이다.

이처럼 올해 OCI 군산공장은 안전문화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는 ‘안전 리더십 프로젝트’로 이어진다. 관리감독자 이상 리더들의 안전 수준을 높



“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변화와 실천은 계속될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강하게 피력하며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



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OCI 전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리더들의 주도적인 안전보건관리는 물론 전 직원이 함께 실천하며 OCI만의 안전보건문화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OCI 군산공장은 안전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의 힘’을 더욱 기르려 합니다. 리더들이 보다 안전보건 부문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이유죠.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전 직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정착할 것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TBM(안전점검회의) 활동 캠페인’도 정착하는 중이다. 주로 TBM은 건설 사업장에서 시행하지만, OCI 군산공장도 모든 작업에 대해 운영하고 있다.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영상 촬영하고 기록하며 실제 작업허가서와 대조해 모니터링한다. 두 달에 한 번씩 우수TBM 영상을 홍보하고 포상하며, 점심시간에도 영상을 송출한다. 더하여 작업중지권에 대한 포상도 이행한다.

“작업 전 위험 요인을 한 번이라도 직접 말하고 인지해서 작업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작업하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작업중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협력사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를 인지해도 참고 작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업을 스스로 멈춘다는 것, 그 리스크는 노동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고를 중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막는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안전문화를 위한 마인드 구축체계가 중요한 이유죠.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중입니다.”

### 상생하며 공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OCI 군산공장의 상주 협력사는 총 12곳으로 유지보수 정비, 제품 포장, 물류 출하로 나뉜다. 지금까지는 협력사의 위험성평가 등을 자체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5월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상생협력사업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력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례로, 협회의 컨설팅을 통해 협력사의 근원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파악 및 대책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상 문제점 파악과 개선안을 제안받기로 했다. 또한 협력사 CEO 인식개선과 노동자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련 부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실효성을 향상하고,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길 고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심 없이 달려 온 안전보건활동이기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 중이지만, 현용민 부장은 여전히 고민 중이다. 수십 년 현장의 특성상 각각의 업무로 인한 노동자의 인식을 단번에 변화시키기란 어려운 사실이다.

“1~2년 시간으로 완벽을 구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전 관련해 지속적인 관찰과 보장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OCI 군산공장은 소통이 강점입니다. 협력사의 니즈를 파악해 계속해서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최대한 초빙해 안전보건 관련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물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변화와 실천은 계속될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강하게 피력하며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Mini Interview

안전보건문화 브랜드로  
안전의식 키울 것

SH&E팀 현용민 부장



OCI 군산공장 SH&E팀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OCI 군산공장 SH&E는 안전·보건·환경의 가치 체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OCI 군산공장 내부의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며 검토·해결·대응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을 비롯해 여러 화학제품을 기획·개발·생산·제조·설비·포장·물류 등 다양한 산업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화학공장이기에 작은 민원이라도 간과하지 않고 대처하며 더욱 안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올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올해의 목표는 전 직원의 안전의식을 키워 안전문화 브랜드를 정착하는 것입니다. 전사적으로 안전 시스템은 갖춰있으나, 시스템 활용이 관건입니다. 결국 안전은 ‘문화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추진 중인 다양한 안전보건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에 대한 주력도 이 때문입니다. 아울러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을 목표로 ‘무재해’를 위한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